

완전체로 원정 12연전 KIA ‘핑계는 없다’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창과 방패를 동시에 강화한 ‘호랑이 군단’이 원정 12연전에서 순위 싸움의 승부를 건다.

KIA 타이거즈가 긴 원정길에 오른다. 5일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주중 원정 3연전을 갖는 KIA는 이후 창원으로 가서 NC 다이노스를 상대한다.

다음 주에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안방을 찾아 원정 12연전을 이어간다.

‘디펜딩 챔피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순위 싸움의 분수령이 될 12연전이다.

올 시즌 99경기를 치른 KIA는 48승 4무 47패의 전적으로 0.50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안방에서 29승 2무 20패를 수확하면서 홈에서의 승률은 0.591, 원정에서는 19승 2무 27패의 성적으로 0.413의 승률을 보였다.

원정 약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원정 12연전에서 승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부상 선수들도 모두 복귀한 만큼 핑계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지난 2일 타선의 마지막 퍼즐인 김도영이 엔트리 에 등록됐고,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도 3일 1군에 복귀했다. 비로 2·3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가 취소되면서 두 선수의 부상 복귀전은 미뤄졌지만 KIA는 완전체로 이번 원정길에 오른다.

원정 12연전의 시작점인 사직에서의 결과가 중요하다. KIA 입장에서는 설욕전이기도 하다.

KIA는 후반기 첫 원정 상대로 롯데를 만났었다. 그리고 KIA는 7월 25일부터 진행된 사직 대결에서 스윙패를 당했다. 앞선 주중 LG와의 홈 3연전 패배까지 더하면 6연패였다.

중요했던 승부에서 스윙패를 당한 KIA는 이후 7연패에 빠져 7일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KIA는 3위 롯데에 6경기 뒤진 5위로 시작을 찾는다.

앞선 대결 양상과는 다른 승부가 기대된다.

KIA는 제임스 네일을 시작으로 올러-양현종으로 롯데와의 맞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팔꿈치 염증으로 로테이션에서 이탈했던 올러가 다시 가세하면서 선발진의 무게감이 더해졌다. 여기에 NC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볼펜의 급한 불도

롯데-NC-삼성-두산과 격돌

해결사 김도영 복귀 천군만마

네일-올러-양현종 선발 탄탄

순위 싸움 중대 분수령 될 듯

겼다.

‘이적생’ 한재승은 두산과의 맞대결이 펼쳐진 지난 7월 31일 이적 후 첫 등판에서 야수진의 역전극을 발판 삼아 승리투수가 됐고, 전상현·정해영의 휴식일이었던 지난 1일 한화전에서는 세이브까지 수확했다. 3·2로 앞선 9회초 등판해 2사에서 안타는 하나 맞았지만 비도둑 끝에 견제로 대주자 이상혁을 잡아내면서 극적인 승리를 완성했다.

김시훈도 두 경기에서 4이닝을 던져주면서 분위기 반전에 역할을 하고 1승을 챙겼다.

무엇보다 ‘해결사’의 복귀가 반갑다.

5월 27일 키움전에서 도루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김도영이 팀에 다시 합류했다. 개막전에서는 왼쪽 햄스트링을 다쳤던 김도영은 이번에는 차분하게 ‘완벽한 몸’을 목표로 복귀를 준비했고, 전력에 재가세했다.

올 시즌 KIA는 간발의 차이로 승기를 내주면서 패배를 기록한 경기가 많았다. 안타 하나, 희생플라이 하나가 아쉬웠던 경기들이 많았던 만큼 김도영의 가세는 천군만마다.

김도영은 볼펜 정상화의 키도 쥐고 있다. 1·2점차의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면서 볼펜진의 과부하가 이어졌고, 투·타의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서 KIA는 좀처럼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직 설욕전에 이어 창원에서는 이적생들의 눈길 끄는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와 NC는 지난 7월 28일 3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외야수 최원준·이우성과 내야수 홍중표를 내준 KIA는 한재승·김시훈과 내야수 정현창을 영입했다.

깜짝 트레이드 이후 두 팀의 첫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친정팀을 상대하는 이적생들의 성적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키움 송성문 ‘6년 120억’ 비FA 계약 ‘대박’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송성문(28·사진)이 비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6년 총액 120억원에 장기 계약을 맺었다.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가운데 역대 여섯 번째로 총액 100억원을 넘는 사례이며, 야수 기준 역대 최고액이다.

키움 구단은 4일 “송성문과 계약기간 6년, 총액 120억원의 조건으로 비FA 다년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전액 연봉 보장 조건이며,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약은 보장 연봉 기준으로 SSG 김광현의 131억원(4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한화 류현진(8년, 총액 170억원)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야수 중에는 삼성 구자욱의 90억원(5년, 별도 옵션 30억원)을 능가한 기록이다.



구단은 중장기 전력 구상에서 송성문이 꼭 필요한 전력으로 판단해 연초부터 계약을 준비했다.

지난 4월 선수 측에 의사를 전달한 뒤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2015년 키움 유니폼을 입은 송성문은 입단 초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성실한 자세로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해에는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올 시즌에도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며 팀 주축 내야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해 시즌 중반부터는 주장으로 리더십도 발휘하고 있다.

송성문의 프로 통산 성적은 타율 0.278, 70홈런, 421타점이며, 올 시즌은 타율 0.297, 16홈런, 57타점으로 활약 중이다. /연합뉴스



송원대, 전국대학야구선수권 3위 ‘기염’

송원대(총장 최수태)가 제80회 전국대학야구 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사진>

송원대는 최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한양대에 3·4패를 기록했다. 송원대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전국 51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3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려 명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16강전에서 동국대를 9·2로 꺾은 송원대는 8강 전에서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11·3, 8회 콜드승을

거뒀다. 이어 한양대와의 4강 승부에서 0·4로 뒤진 7회초 김번준·박민서·김남규의 연속 안타를 앞세워 3점을 추격했지만 아쉽게 3·4 패를 기록했다.

송원대 고천주 감독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학교, 학부모임들과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 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꾸준히 정상권에서 우승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는 연세대를 8·6으로 꺾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작별의 순간, 하늘도 울었다

손흥민, 서울서 토트넘 고별전…동료·6만여 팬 ‘배웅’

‘70m 드리블 골’ 등 명장면 상영·헝가래에 끝내 눈물



울여름 팀을 떠나기로 한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보’ 손흥민(33)은 10년을 뒀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의 순간 울음을 참지 못했다.

경기가 끝나갈 때쯤 손흥민의 다음 도전을 응원하는 듯한 ‘축복의 비’가 시원하게 쏟아져 눈물을 씻어줬다.

손흥민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은 토트넘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가득 찼다.

이날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경기는 10시즌을 뒀 토트넘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였다.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브레넌 존슨은 손흥민의 전매특허인 ‘찰각’ 세리머니를 펼쳐 보여 흥을 돋웠다.

주장 완장을 왼팔에 두른 손흥민은 열심히 왼쪽을 누비며 득점 기회를 모색했으나 끝내 공격포인트를 올리는 데엔 실패했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달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20분 모하메드 쿠두스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손흥민은 국가대 표팀 후배 양민혁을 비롯해 동료 하나하나와 포옹을 나눴다. 뉴캐슬 선수들까지 2열로 서서 떠나는 손흥민의 등을 두드려줬다.

뽕겨 샹기된 표정으로 미소 짓던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경기가 끝나자 손흥민은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그라운드를 한 바퀴 돌았다.

전광판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푸슈카시상을 받은 70m 드리블 골 등 손흥민의 연출해낸 술한 명장면이 흘렀다.

동료들은 손흥민을 둘러싸더니 헝가래를 쳐줬다. 손흥민은 얼굴을 감싸 쥐고 또 한 번 울었다.

이적설이 파다하던 손흥민은 전날 “울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남긴 발자취는 뚜렷하다.

2015·2016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공식전 454경기를 뛰면서 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넣고 도움은 포함 101개를 올렸다.

토트넘 역대 최다 골 부문에서 해리 케인(민헨·280골), 지미 그리브스(268골), 보비 스미스(208골), 마친 치버스(174골)에 이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2021·2022시즌에는 EPL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23골)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지난 5월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하며 ‘무관’(無冠)의 꼬리표도 떼어냈다.

허리에 태극기를 두른 손흥민은 주장 자격으로 우승 트로피를 반짝 들어 올리며 토트넘과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을 만들었다. /연합뉴스

김아림 LPGA 메이저 우승 불발…공동 4위



AIG 여자오픈

김아림(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총상금 975만달러)에서 공동 4위에 올랐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마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6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적어낸 김아림은 기대했던 역전 우승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메이저대회 톱10 입상의 성과를 올렸다.

US오픈에서 공동 26위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세브린 챔피언십 공동 40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 컷 탈락 등 메이저대회에서 유난히 애를 먹었던 김아림은 올해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을 남겼다.

16강에 올라 공동 9위로 치는 매지 플레이를 뎀 스트로크 플레이 대회에서 톱10 진입은 2월 HSBC 월드 챔피언십 공동 7위 이후 6개월 만이다. AIG 여자오픈에서도 지난 2022년 공동 13위를 뛰어넘어 개인 최고 순위를 찍었다.

‘슈퍼투키’로 주목받던 신인 아마시타는 최종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상금왕까지 차지했던 아마시타는 지난해 웰피어링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투어에 입성한 실력파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입상했던 그는 생애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아마시타의 우승으로 이번 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세브린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일본인 챔피언이 두 명 배출됐다.

김세영과 김효주가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작년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에 오른 지노 티미쿤(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코다는 그동안 72주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지켰다. /연합뉴스